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중, VLGC 1+1척 수주

현대중공업이 영국 선사 Union Maritime으로부터 LPG-fuelled 91,000CBM급 VLGC 1+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7,900만달러이고 납기는 2022년까지라고 보도됨. Union Maritime은 이번 발주로 LPG 운송 시장에 처음 진출했으며 현재 탱커 49척, 벌커 4척, Offshore선 3척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Santos, Barossa 프로젝트 FID 연기

호주 석유 가스 생산 업체 Santos가 Barossa backfill LNG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FID)을 연기한다고 보도됨. Santos는 당초 상반기 중에 Barossa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자본 지출을 5.5억달러(35%)를 줄이고 금년 중 생산 비용 현금 지출 5,000만달러를 줄임으로써 유가가 손익분기점인 25달러선일 때 잉여현금흐름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힘. (선박뉴스)

Shale takes \$2 billion hit as Chevron slashes spending

미국의 슈퍼 메이저 Chevron사가 현재 원유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비용 계획을 줄인다고 보도됨. 회사는 사업부 전반에 걸친 예산 감축을 계획하였고, 미국 Permian 지역의 Upstream 부문에서 20억달러, 기타 Upstream 및 탐사 부문에서 7억달러 등을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됨. (Upstream)

Scrap market being 'devastated' by coronavirus restrictions

COVID-19사태로 인도와 파키스탄에 위치한 폐선소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도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및 선박들의 정박 금지명령 등이 폐선소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폐선이 집행되는 방식 또한 변화 시켰다고 보도됨. 인도의 경우 31일까지 추가적인 선박의 정박이 없을 예정이고, 파키스탄은 17일부터 선박들의 정박이 재개되었다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오일뱅크, 임원급여 20% 반납...코로나 비상경영체제 돌입

현대오일뱅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원 급여 반납 등을 포함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고 보도됨. 전 임원의 급여 20% 반납과 경비예산 최대 70% 삭감 등 불요불급한 비용의 전면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보도됨. 임원들의 급여 반납은 현대중공업그룹 전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보도됨. (연합뉴스)

KAI, 미국 훈련기 사업 불시 재점화...미 공군, 한국산 T-50A 최대 8대 도입 추진

미 공군이 KAI가 제안한 T-50A 8대를 임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미 항공전문지 애비에이션위크에 따르면, 미 공군은 리스업체인 힐우드항공과 KAI의 T-50A 4~8대를 장기 임차하는 계약을 추진 중. 성사가 될 경우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기대된다고 보도됨. (조선비즈)